

85세 김영옥 ‘시니어 파워’…젊은층도 반했다

영화 ‘우리 엄마를 부탁해’ 첫 주연 라디오스타·바퀴 달린 집 등 출연 화끈한 입담·탈꼰대 마인드 인기 ‘뜨거운 싱어즈’선 최고령 참가자 신영광 PD “김영옥은 나의 뮤즈”

‘할미넴’ 김영옥(85)이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생애 첫 영화 주연은 물론, 각종 예능프로그램에서 대활약하며 나문희·윤여정·오영수를 잇는 ‘대세’ 시니어 스타로 등극했다.

우선 김영옥은 4월 13일 개봉하는 영화 ‘우리 엄마를 부탁해’(감독 박경복·제작 파란오이)로 관객을 만난다. 1957년 데뷔 이후 65년 만에 출연자 크레딧 맨 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며 2018년 84세의 나이로 영화 ‘덕구’에 출연한 이순재(88)의 뒤를 잇는 최고령 스크린 주연이 된다.

그는 효자인 척하는 아들과 자신을 돌봐주지만 뭔가 속내를 감춘 듯한 요양보호사 사이에 끈 85세 할머니를 연기한다. 부양의 의무와 대안가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며 고령화 사회 속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



TV만 틀면 김영옥이 나온다. 첫 주연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까지 장악하며 대세로 떠올랐다. 사진제공 | 씨네필운

김영옥은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고민 상담쇼’를 표방하는 JTBC ‘유쾌한 상담

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 화끈한 입담을 선보이며 주목 받은 뒤 본격적인 ‘매운맛 토크’를 선보이고 있다. 관련 유튜브 영상에는 김영옥의 ‘탈꼰대 마인드’와 삶의 연륜을 바탕으로 한 화끈한 해결책 제시에 열광하는 네이버의 댓글이 잇달아 달리고 있다.

김영옥은 이미 2016년 JTBC ‘힙합의 민족’에 출연해 젊은 래퍼들과 능숙하게 호흡하며 ‘할미넴’(할머니와 미국 래퍼 에미넴의 합성어)으로 불렸다. 지난해 이를 콘셉트로 내세운 시리얼 CF도 찍어 유튜브에서 100만 뷰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랩에 이어 노래에도 도전한다. 15일 첫 방송한 JTBC ‘뜨거운 싱어즈’이다. 평균 나이 57세의 시니어들의 합창단 도전기를 그리는 프로그램에서 김영옥은 최고령 참가자이자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다.

연출자 신영광 PD는 “김영옥은 나의 뮤즈”라며 “프로그램 기획도 그로부터 출발했다. 김영옥의 인생을 합창으로 녹여보고 싶었다. 그와 작품을 함께 했거나 접점이 있는 이들을 합창단원으로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뉴스 HOT 3

김용건, 39세 연하 A씨서 낳은 아들 입적 절차

배우 김용건(76)이 39세 연하 비연예인 A씨 사이에서 얻은 아들을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 15일 방송에 따르면 김용건은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들의 유전자 DNA 검사를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뢰했다. 이후 일주일 만인 전날 친자 확인 결과를 통보받고 호적 입적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건은 A씨가 아이 양육에 전념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두 아들인 하정우, 차현우도 아버지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김용건은 1977년 B씨와 결혼했으나 1996년 이혼했다. A씨와는 2008년부터 13년간 연인 관계를 이어왔으나 지난해 A씨가 임신하면서 출산 여부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방탄소년단 지민, 데뷔 후 첫 드라마 OST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지민이 데뷔 후 처음으로 드라마 OST를 부른다. OST 제작사 남남엔터테인먼트는 15일 “지민이 4월 9일 첫 방송하는 새 토클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에 참여한다”며 “극의 흐름과 어우러지는 노래로 드라마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제주를 배경으로 삶의 끝자락, 절정 혹은 시작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움비버스 드라마다. 이병헌·신민아·차승원·김우빈 등 텁스타들이 주연으로 나선다. 지민이 부른 OST 곡의 발매일은 미정이다.

박하선·류수영 부부, 산불피해 복구에 1억 기부

배우 박하선·류수영 부부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온정을 보탰다. 15일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부부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 구호협회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최근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에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쓰인다. 이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 주민들의 고통에 마음을 보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 박하선은 이날 SBS ‘산불 피해돕기 특별 생방송-희망을 보냅시다!’의 진행자로 나서 시민들에게 ARS를 통한 모금 참여를 호소했다.

칸·베니스·충무로까지…세계영화판 ‘여성감독 시대’

28일 아카데미…캠피온 감독 유력 국내선 입순에 감독의 ‘교섭’ 기대 장유정 감독 ‘정직한 후보2’ 준비도



임순례 감독

장유정 감독

여성감독들이 세계 영화판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대표 영화상인 아카데미상부터 권위와 위엄을 내세우는 영화제까지, 여성 감독들이 최고상을 훔쳤고 있다. 한국영화계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신예 여성감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대표적인 연출자들이 신작 개봉을 앞두고 있다.

●트로피 훔쓰는 우먼파워

칸·베니스·베를린 등 최근 유수의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여성감독이 가져갔다.

이어 2년 연속 여성감독의 작품을 택했다. 올해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의 주인공도 ‘알카리스’를 연출한 스페인 여성감독 카를라 시몬이었다.

28일(한국시간) 열리는 제9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제인 캠피온 감독과 그의 신작 ‘파워 오브 도그’가 가장 유력한 감독상과 작품상 수상 후보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열린 미국감독조합상(DGA)에서 이미 최고상을 받았으며 골든글로브에서도 작품상과 감독상을 모두 가져갔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클로이 자오 감독이 ‘노매드랜드’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다.

●충무로 대표 여성감독, 출항 대기

한국도 이 같은 우먼파워를 이어간다. 충무로 대표적인 여성감독들이 신작을 선

보인다.

‘리틀 포레스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와이키키 브라더스’ 등으로 낯익은 임순례 감독이 ‘교섭’으로 관객을 만난다. 중동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사건을 소재 삼아 인질 구출에 나선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을 각각 황정민과 현빈에게 맡겼다.

‘부라더’, ‘김종우 찾기’ 등을 연출한 장유정 감독은 2020년 ‘정직한 후보’의 후속편 ‘정직한 후보2’를 극장에 내건다. 전편에서처럼 라미란이 ‘진실의 주동이’ 국회 의원 역, 김무열이 보좌관 역을 각각 맡고 그룹 하이라이트의 윤두준이 새롭게 합류한다.

최근 몇 년간 신예 여성감독들의 활약이 빛나는 가운데 올해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지은 감독은 장편 데뷔작 ‘비밀의 언덕’으로 2월 베를린 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경쟁부문에 초청받았다. 올해 베를린의 러브콜을 받은 한국 연출자는 홍상수 감독과 이지은 감독, 둘 뿐이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유산균과 비타민D, 콜라겐(부원료)을 한포에!

김치 유산균을 비롯한 19종 생유산균, 유해균 억제 정상적인 면역기능도 지켜

장은 몸의 면역체계의 60~70%를 차지한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밸런스가 중요하다. 즉 장내에 유익균이 많고 유해균이 적은, 바람직한 장내 세균총이 자리 잡아야 건강한장을 유지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는 기업 일양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과 콜라겐(부원료), 비타민D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프로콜D’를 출시했다. 프로콜D는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부원료)를 함유한 신바이오틱스 포뮬라다. 장건강을 위해서는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프리

바이오틱스(부원료)는 유산균의 생장을 돋는다. 프로콜D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살아있는 19종 균주를 모두 담아 40억마리를 투입하며, 1억 마리를 보장한다.

세계 3대 유산균 기업인 캐나다 로셀사의 특허받은 코팅 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캡슐은 유산균이 위산에 죽지 않고 장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인의 장에 친숙한 김치 유래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과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스는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해 건강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콜라겐(부원료)을 함유한 유산균 프로콜D는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D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한 아연도 주원료로 함유했다. 이밖에도 비타민B1, B2, B6까지 6중 복합기능성을 프로콜D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 프로콜D는 ▶ 장에 가스가



프로콜D 일양약품(주)

65세 이상 절반이 단백질 섭취량 부족!

근력 키우려면 운동 + 단백질 고함량 단백질 한 포로 하루 섭취 권장량 167% 충족

근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50세 이후부터는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져 근력 강화에 신경 써야 한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과 함께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풍부하게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은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들면 따로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뉜다. 한 종류의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는 동·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면 체내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공급된다. 단백질은 매끼 꾸준히 먹는 것이 좋은데 이는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고 분해 후

배출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하루 세끼 식사만으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기가 어렵다. 일양약품의 바로프로틴Q는 중장년층에 필요한 단백질 공급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다. 바로프로틴Q 한 포에는 20g의 고함량 동·식물성 단백질이 균형있게 들어있어 나이 들어 부족해 지기 쉬운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한 포만으로 단백질 1일 섭취권장량의 167%를 충족할 수 있으며, 35g 한 포에는 초유 단백을 포함하는 고함량 단백질 20g과 키클, 마그네슘, 비타민B6, 나이아신, 판토텐산 등 6가지 핵심기능성 원료가 들어있어, 중장년층에 부족해 지기 쉬운 각종 영양소를 채워준다.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 발린, 이소류신도 함유했다. 바로프로틴Q는 밀크맛으로 물이나 두유, 우유에 타서 맛있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며, 스틱 포 형태로 포장돼 휴대가 간편하다. 소화를 고려해 속 편하고 맞춤 영양으로 설

계된 바로프로틴Q는 ▶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분 ▶ 단백질 섭취를 위한 고기, 계란 등의 소화가 부담스러운 분 ▶ 비쁜 아침 영양공급이 필요한 온 가족에게 적극 권한다. 일양약품은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자 300세트 한정으로 바로프로틴Q 4개월 분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2개월분을 추가로 드린다. 16종 기능성의 고단백 건강기능식품 바로프로틴Q로 균육 채워 활기찬 중년을 준비하자.

www.ilyang365.co.kr
<신용카드 3~6개월 무이자 할부>

▶ 문의전화 : 080-830-0303



바로프로틴Q 일양약품(주)